

수퍼-16 컴퓨터 生産

小型이면서 業務處理 能力뛰어나

3년전에 出帆한 現代電子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나가면서 착실한 成長을 계속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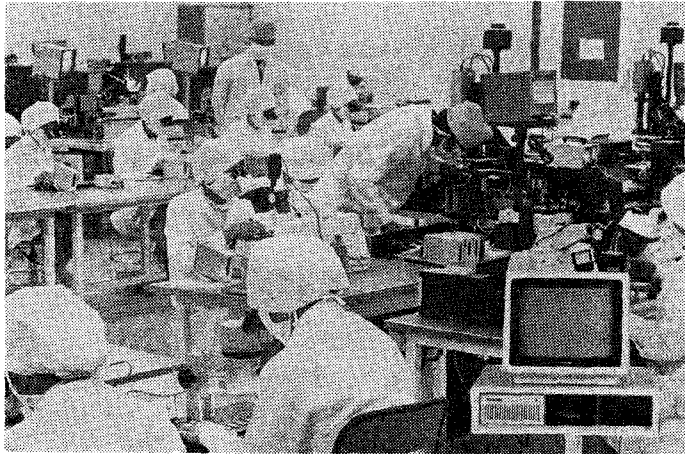
現代電子는 최근 小型 컴퓨터인 수퍼-16을 개발해내는 성과를 올렸다. 이번에 개발한 수퍼-16은 小型이면서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.

多技能 워크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사용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적응·使用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각종 자료 및 多量の 문서처리와 기업의 데이터 처리에 특히 유용하다.

더우기 LAN(Local Area Network)기능과 IBM의 단말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高度의 정보산업시대에 알맞은 사무용 컴퓨터라 할 수 있다. 주기억장치의 기억용량이 256KB로 同一시스템 기판내에서 512KB까지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고 7개의 확장 Slot이 마련되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.

수퍼-16은 LAN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며 시스템 Resource를 共有할 수 있다. 또한 IBM-PC XT용으로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가능하며 現代電子에서 인사, 급여관리, 회계관리, 건설현장관리, 병원관리, 공정관리등의 국내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그 이용범위는 他社 제품보다 훨씬 높다.

현재는 英文으로만 사용 가능하나 現代電子는 한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.



〈수퍼-16 컴퓨터 生産 光景〉

한편 現代電子는 3월 7일 美國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社와 첨단 LSI 제품의 생산·공급에 관한 長期계약을 체결, 금년부터 半導體 제품을 대량 공급하게 되었다. 이 계약에 따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社는 現代電子의 LSI 반도체 제품·생산공급을 위한 技術과 生産要員의 훈련까지 제공하게 되어 있어 現代電子는 반도체 기술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.

現代電子는 또 반도체 메이커인 美 인코스社와도 C-MOS 256KD램 제조에 관한 기술계약을 체결, 이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量産체제에 들어갔다. 5년 기간으로 체결된 이번 기술계약으로 인코스社는 現代電子에 256KD램 제조 기술 제공은 물론 국내 생산분중 상당량을 구입하게 된다.

256KD램은 반도체 제조기술 가운데 최첨단기술인 C-MOS(상보형

금속산화막 반도체 IC)로서 소비電力, ACCESS TIME, 선폭, 내잡음 특성, 신뢰도에서 기존의 N-MOS보다 크게 진보된 것으로 美國에서도 C-MOS 개발생산업체는 3~4개 회사에 불과하다. 현재 256KD램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美國, 日本 등 전 세계에 10여개社에 달하며 관련업체는 향후 3~4년간 매년 40%의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現代電子는 이번 수퍼-16퍼스널 컴퓨터의 제작과 함께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지원 및 애프터서비스에도 더욱 치중하기로 했다.

또 제품을 시판하기에 앞서 가능한 모든 제품을 現代 各社에서 시험 사용하여 일부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. 또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도 적극 지원, 우수한 제품생산과 함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. ☞